



코스피 3149.93 (+1.64)	코스닥 980.29 (+1.16)
금리 (미국 3년) 0.981 (+0.002)	환율 (원/달러) 1098.00 (+2.90) (14일)



[뉴스]
상반기 롯데 VCM
신동빈 회장
명백한 미래비전 주문
02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S21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혁신 총망라, 99만원대 '갤S21' 베일 벗다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1

3개 모델로 핑크 등 총 6종 컬러 울트라, S시리즈 최초 S펜 지원

갤럭시S21이 전문가급 카메라를 앞세워 올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선다. S펜을 지원하는 등 활용성도 대폭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온라인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을 열고 갤럭시 S21을 공개했다.

갤럭시S21은 올해 출시되는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다. 21일까지 사전 계약 후 29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 갤럭시 S21과 갤럭시 S21+, 갤럭시 S21 울트라 3개 모델로, 가격은 99만9900원에서 159만9400원이다. 내장메모리는 8GB RAM에 저장 용량 256GB에서 16GB RAM, 512GB까지 다분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다. 울트라 모



갤럭시 S21 + 팬텀 바이올렛. /삼성전자

델에는 후면에 1억800만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카메라 및 1000만화소 듀얼 픽셀 망원 카메라, 갤럭시S21과 S21+는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와 12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디스플레이도 더 선명해졌다. 다이내믹 AMOLED 2X 패널로, 울트라 모

은 워드HD+로 해상도를 한층 높였다. 주사율은 120Hz, 콘텐츠에 따라 최저 10Hz까지 자동으로 조정해 배터리 효율도 극대화했다. 울트라 모델은 1500니트로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밝은 화면을 낸다. 사용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블루라이트를 조정해주는 '아이 콤포트 실드' 기능도 있다.

디자인도 혁신했다. 스마트폰 바디와 메탈 프레임, 후면 카메라를 매끄럽게 잇는 '컨투어컷' 디자인으로 스마트폰 디자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컬러는 팬텀 블랙·실버·그레이·화이트·바이올렛·핑크 등 6종으로, 모델별로 따로 적용했다. 지문이 묻는 것도 최소화했다. 편의 기능도 대폭 추가했다. 지문 인식 스캐너가 1.7배 커져 더 쉽게 인증을 할 수 있고, 울트라는 커버 액세서리를 통한 S펜도 지원하게 됐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가보지 않은 길 간다 김정주 '우주'에 베팅

넥슨 지주사 NXC

美 스페이스X에 176억 투자
미래먹거리로 항공우주 주목

가상화폐 빚쟁이 인수 추진 등
미래 가치 부분 다양한 투자



김정주 NXC 회장.

/NXC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그걸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안한데요. 뭔가 우리만의 것을 내야 하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 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지난 2015년 출간된 넥슨 기업가서 전인 '플레이'에 실린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신사업을 향한 넥슨 지주사 NXC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상화폐 '빚쟁이'에 투자를 추진한다고 전해진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김정주 대표가 꿈꾸는 미래 먹거리, 우리만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NXC는 지난해 8월 스페이스X가 모집한 19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신주에 1600만달러(한화 약 176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펀드에 약 60% 지분을 투자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스페이스X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세운 민간우주개발업체로, 2050년까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완수한다는 우주 개척의 꿈을 가졌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민간이 주도한 첫 유인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보내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을 받는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김정주 대표의 관심이 블록체인에 이어 항공우주까지 뻗어나간 셈이다. 김정주 대표는 1994년 세계 최초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하면서 넥슨을 창립, 온라인 게임 산업을 개척한 대표적 창업가로 꼽힌다. 이후에도 2004년 '메이플 스토리'를 개발한 위젯 인수를 시작으로 회사 몸집을 키워 'M&A의 귀재', '투자의 귀재'로 통하기도 한다. 사무실에 있기 보다는 해외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자유분방

한 시도를 하는 편이다.

그런 만큼 NXC는 교육, 유통·커머스, 콘텐츠, 핀테크, 미래가치 부분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빚쟁이'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NXC는 지난 2016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확보했고, 2018년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도 인수했다. 지난해 3월에는 투자·금융거래 플랫폼업체 '아퀴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아퀴스는 메신저처럼 대화하는 방식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요소를 추가한 투자 서비스를 내년 중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스페이스X 투자 또한 그간 투자 이력을 보면 의외의 행보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2013년에는 민간 최초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미국 기업 '문 익스프레스(Moon Express)'에 투자하기도 하고, 유망있는 승차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 등 미래가치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뿐 아니라 푸드 테크 기업, '식품 패티' 등 미래식량자원과 관련된 미래 식품 분야, 유통·콘텐츠 분야, 어린이·교육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요 회사들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유아용품업체 '스토케'나 레고 거래 사이트 '브릭링크' 등을 인수한 사례도 있다.

다채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춰지만, 우리다음 세대를 겨냥한 미래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는 늦지 않게 가장 먼저 도전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는 김정주 대표의 전략 과도 궤를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0조 OCIO 잡아라... 기금 유치 大戰

OCIO범위 민간기업·대학 등 확대
왜곡된 수수료 구조 개선 지적도

200조원 안팎의 외부위탁운용(OCIO) 기관 선정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가세하면서 OCIO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OCIO 범위가 공적기금을 비롯해 민간 기업·대학 기금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OCIO 시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OCIO는 외부 자산운용사가 연기금·고액자산가와 같은 자산보유자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 주는 전략적 일임 위탁을 말한다. 기존 전통적 위탁 방식에 비해 전략적 의사결정 권한이 수탁자인 OCIO 운용사에 위임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산운용사·증권사 "새 먹거리 전쟁"

OCIO 시장은 정부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조성된 공적기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1년 공적연기금투자법을 시작으로 다수의 대형 공적기금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기금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는 중이다. 현재 국내 OCIO 시장 규모는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말 이화여대와 1500억원 규모의 학교 기금 위탁운용 계약을 맺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9년 서울대와 200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위탁운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이밖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기획재정부 연기금투자자 등의 자금을 맡았다. KB자산운용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도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대

체투자 중간운용사에 선정되면서 각각 70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권사도 OCIO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주택도시기금의 위탁운용을 나눠 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해 7개 기업으로부터 종합자산 위탁운용 형태로 5400억원을 신규 유치하는 등 업계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OCIO는 기존 안전자산 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운용할 경우 자산 배분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증권사가 OCIO 운용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증권사도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면에 계속>

/염재인 기자 yj1208@

<NXC 주요 관계사>

회사명	소개
넥슨	994년 창립, 세계 최초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 선행. 2011년 12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
NXMH	NXC의 해외 투자 담당하고 있는 벨기에 소재 투자전문 법인
코빗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스토케(STOKKE)	노르웨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전문 기업
아그라스 델릭 (AGRAS DELIC)	애완동물 사료 업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자연산 바다 어종만 사용
비트스탬프	유럽 최고 암호화폐 거래소